



미 증시, 실적 기대감 속 낙폭과대 인식으로 1%대 반등

미국 증시 리뷰

20 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주요국들의 잇따른 방역 강화 소식에도, 전거래일 급락세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 IBM(+1.5%) 등 주요기업들의 호실적에서 기인한 실적 시즌 기대감이 재부각된 영향에 힘입어 1%대 반등세로 마감(다우 +1.6%, S&P500 +1.5%, 나스닥 +1.6%).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0.1%)를 제외한 산업재(+2.7%), 금융(+2.4%), 부동산(+1.9%), 경기소비재(+1.7%) 등 전업종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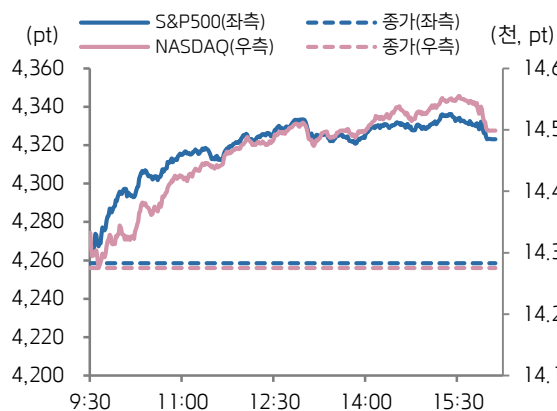
미 CDC(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최근 신규 확진자 중에서 델타 변이 비중이 83%대까지 급증했다고 밝힘(7 월초에는 52%대). 이 같은 확산세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 또는 권고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백악관 내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돌파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한동안 코로나 안정권에 들어가 있었던 미국도 다시 영향권에 진입한 상황.

미국 증시 평가

델타 변이 확산세가 경기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 남아있으나, 작년 3 월처럼 국가 차원의 전면 봉쇄조치를 단행하지 않는 이상 경기 둔화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임. 전거래일 미국 증시의 반등을 이끈 배경도 델타 변이에 대한 시장 반응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대된 영향이 컸던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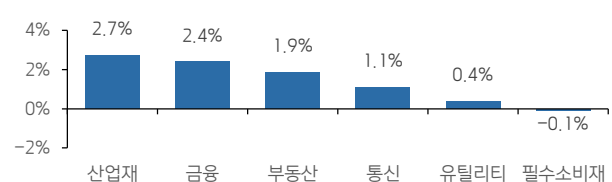
델타 변이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현재 인플레이션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시장 참여자들 간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둔화(극단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vs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조기 긴축”이라는 서로 다른 악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상황. 전자의 경우, 그 일말의 가능성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지만, 연준과 연관된 후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한동안은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최근과 같은 변동성 확대 국면이 출몰할 것으로 보이나, 기업실적 시즌 기대감은 아직 유효하다는 점은 시장의 하단을 지지 시켜줄 요인이기에, 현시점에서 적극적인 매도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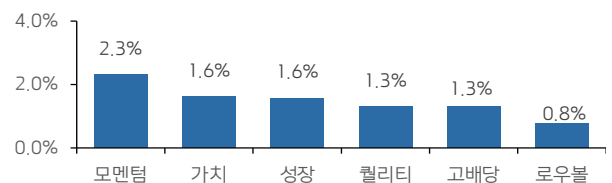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2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8.9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선거레일 낙폭 과도했던 경기 민감주들로의 저점 매수세 유입 가능성 2. 7월 1~20일까지의 한국 수출 실적 발표 및 그에 따른 수출 대형주들의 주가 움직임 3. 코로나 피해주(컨택트) vs 코로나 수혜주(언택트) 간 주가 차별화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20 일(화) 코스피는 인플레이션 급등 부담 및 델타 변이발 선진국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 중 1% 가까운 약세를 보임. 그러나 장 후반 들어 상기 약재들에 대한 시장 반응이 과도했다는 인식으로 낙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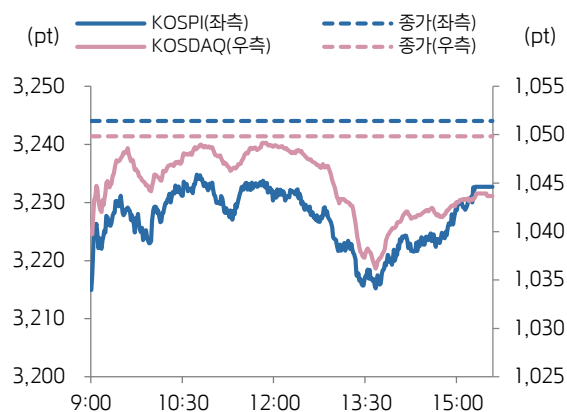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2.6%), 의약품(+1.0%), 기계(+0.5%) 등이 강세, 비금속광물(-2.8%), 운수창고(-2.0%), 종이목재(-1.8%)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 1,810 억원 순매도, 기관과 개인이 각각 1,520 억원, 380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델타 변이 불안심리 진정에 따른 미국 증시 급반등 영향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전망. 원/달러 환율도 1,150 원대를 다시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낙폭과대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 여건 호전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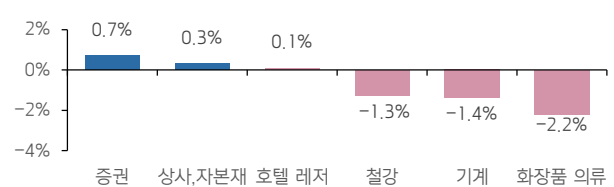
고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이 선거레일 폭락 이후 좀처럼 반등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국내 중소형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7월 1~20일 수출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 지표 결과에 따른 국내 수출 대형주들간에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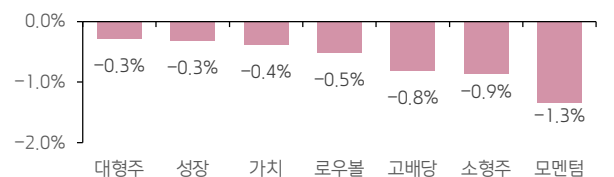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7월 2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